

지역 매아리



농어촌공 부안, 수리시설감시원 위촉장 수여·안전교육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지사장 조남출)는 17일 지사 대회의실에서 수리시설 관리원 7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수리시설관리원 위촉장 수여 및 안전교육이 실시됐다.

부안지사는 이날 농업용수관리업무 수행에 능숙하고 영농경험이 풍부한 지역 주민들 중에서 계절 직 시설관리원 73명을 위촉하고, 시설물관리와 물관리 요령 및 수질관리 요령, 근무수칙과 안전수칙 등에 대하여 중점 교육을 가졌다.

조남출 지사장은 "주기적인 교육으로 안전을 강화하고, 철저한 시설물 관리를 통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을 담당할 이권재 부장은 양·배수장 관리요령 및 TM/TC(시설물 원격조절장치)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TM/TC를 이용한 시설물 관리에 대한 관리원의 이해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벌였다.

/부안=이옥수기자

정읍시, 통합마케팅 협의회

정읍시는 17일 오후 들어 두 번째로 통합마케팅 협의회를 가졌다.

정읍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 정읍APC)에서 열린 협의회에는 정읍APC 운영주체인 정읍단풍미인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공합인)과 참여조직, 공산 출하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가 2018년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을 설명하고 이경진 조공합인 대표가 정읍APC의 올해 운영 실적을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정읍APC에서는 1,256톤을 출하해 모두 25억원의 매출액을 올렸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정읍APC 운영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심도 있고 다양한 의견도 나왔다.

농민들이 제 값 받고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유통 체계 단련화를 위해 건립된 정읍APC는 정읍통합마케팅의 핵심시설이다. 정읍원협 등 6개 농협이 출자해 35억을 투입해 부면 정읍북로 609 부지 1만2,796㎡에 지상 2층으로 건립했다. 지하장과 선별장 저온저장고,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다. 취 정읍단풍미인조합공동사업법인이 운영하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신뢰받는 시정 구현 앞장

정읍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공개 대상사업 선정

정읍시가 정책 실명제 운영을 통해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여가고 있다.

정책실명제는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 실명과 의견을 생생하게 남기고 이를 시민에게 공개해 공직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관련해 시는 올해 공개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해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18년 정읍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과 1억원 이상 용역사업, 다수의 시민과 관련돼 조례제정과 개정이 요구되는 사업 등 모두 26건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이들 사업 모두를 중점 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시는 이날 중으로 시 홈페이지(www.jongup.go.kr)를 통해 사업 목록을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계획수립 단계부터 용역과 착공, 준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참여한 공직자와 용역 연구기관 관계자, 사업수행기관 등의 실명과 의견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관심이 큰 주요 사업을 정책실명제 대상으로 선정하고 시민들에게 사업 과정과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의 이름과 의견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수준 높은 문화예술·재미있는 볼거리 선사

거리극축제 노상놀이 '고창으로 GO! GO! GO! 상설공연 대장정 시작

21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재)고창농악보존회(회장 이명훈)가 공음면 학원관광농원에서 오는 21일부터 펼쳐지는 '제5회 고창청보리밭축제'에서 2018년 전라북도 거리극축제 노상놀이 '고창으로 GO! GO! GO!(연출 이광휴)' 상설 공연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17일 고창농악보존회에 따르면 '고창으로 GoGoGo'는 고창의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를 대규모 퍼레이드와 전통연희, 재치 있는 재담으로 풀어내는 고창농악보존회의 독창적인 공연 레퍼토리로 고창농악 이수자를 중심으로 결성된 전통연희예술단 '고풍', 고창농악보존회원, 고창군 14개 읍·면 농악단이 함께하는 거리극 농악공연이다.

이번 공연은 (재)고창농악보존회가 지난해 '모인대로 풍장하네'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진행되는 전라북도 거리극축제 노상놀이 기획공연



'고창으로 GoGoGo'는 고창농악보존회의 독창적인 공연 레퍼토리로 고창농악 이수자를 중심으로 결성된 전통연희예술단 '고풍', 고창농악보존회원, 고창군 14개 읍·면 농악단이 함께하는 거리극 농악공연이다.

으로 고창의 명소인 고창읍성, 학원관광농원 청보리밭, 선운사와 고창의 주요 관광지에서 열리는 북분자, 수바, 갯벌 축제장에서 '찾아가는 상설공연'의 형태로 펼쳐진다.

이명훈 (재)고창농악보존회장은 "공연을 통해 고창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과 재미있는 볼거리를 선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2018 전라북도 거리극축제 노상놀이 고창군 대표작인 '고창으로 GO! GO! GO!'는 전라북도 고창군, (재)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이 주최하고 (재)고창농악보존회가 주관하는 거리극 상설공연으로 오는 21일부터 10월 13일까지 고창군 관광명소 일대에서 펼쳐진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군, 기간제근로자 80명 정규직 전환 임용

고창군이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80명을 정규직인 공무원근로자로 전환 임용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CCTV통합관제, 녹지관리, 시설물 관리 등 앞으로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정규직 전환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와 사용자서 전환 평가 등을 거쳐 기간제근로자를 고용 승계하는 것으로 추진됐다.

공무직근로자는 만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며 식비,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지급으로 임금이 오르는 등 복리후생에서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이뤄진다.

박우정 군수는 "항상 고창군 직원이란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고,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고창 건설을 위해 화합·협력하며 역량을 발휘하는 군정 발전의 동반자가 되어 달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농촌관광 팜팜스테이션 전주한옥마을서 찾아가는 홍보 이벤트 펼쳐

고창군이 지난 15일 전주한옥마을에서 '팜팜스테이션고창으로 가자'라는 슬로건으로 고창의 농촌관광 사업인 팜팜스테이션과 팜팜스테이션을 홍보하는 이벤트를 전주 한옥마을에서 성황리에 진행했다.

군은 농촌관광 콘텐츠 홍보의 영역을 넓혀 '찾아가는 홍보 이벤트'를 기획하고 그 첫 행사를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졌다.

전주 한옥마을은 방문객 천만 명 시대를 연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고창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적합한 곳이다. 그 상징성도 커 이번 행사를 추진하게 됐다.

이날 농촌관광을 홍보하기 위해 준비한 추억의 동동구리무 북 체험 농촌 패션쇼를 결성한 즉석사진 포토존, 그리고 오는 8월에 운영하는 '팜팜스테이션'에 대해 홍보를 하면서 많은 관광객들의 관심을 받았다.

테마형 시티투어버스인 '팜팜스테이션'은 창조지역사업 '천년의 보물창고 팜팜스테이션' 사업의 일환으로, 정식운영 전 모니터링 투어를 오는 28일 추진하고 7월까지 월 1회 운영하게 된다.

정식운영은 8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일요일 추진되며 정읍역을 출발해 고창시외버스터미널을 둘러 고창의 우수 관광지와 팜팜스테이션 구축사업으로 만들어진 팜팜농가를 방문하게 된다.

고창농촌관광 팜팜스테이션 김수남 단장은 "전주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고창에도 들러 관광하고 팜팜농가도 방문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연계 시스ٹ을 개발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군, 토산 어종 보호사업 추진

부안군은 강한 번식력과 육식성으로 자연 생태계 교란 및 토산어종의 서식공간을 축소하기 위해 외래 어종 구제에 유용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토산 어종 보호사업을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17일 군에 따르면 관내 고마제 청호제 일원에서 강한 번식력으로 토종 어종의 알부터 성어까지 잡아먹는 대표적인 육식성 어류인 블루길 베스는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환경부 생태계교란 생물지정 고시된 외래 어종으

로야를 퇴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수매사업비(1억 300만원)를 투자 할 계획이며, 지난 3월 22일을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마다 수매하고 있으며, 블루길 가물치 등 양어장 생 사료로 공급되고 있다.

군은 또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4월부터 5월까지 산란기 집중 구제 기간으로 정하여 베스, 블루길을 최대한 포획을 할 계획이며, 올해에는 26톤(4,000원/kg)을 수매할 계획이다.

/부안=이옥수기자

우천규 정읍시장 예비후보 "중증난치성 노인 위한 프리미엄 노인병원 건립"

6.13 지방선거 정읍시장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당 우천규 예비후보는 17일 정읍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역사와 문화, 여가산업에 이어 세 번째 대 공약으로 '중증 난치성 노인을 위한 프리미엄 노인종합 병원' 건립을 발표했다.



심지로 성장 시킬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이번 공약은 중증 난치성 질환인 암을 비롯해 중증 신경계 질환인 중풍, 파킨슨, 치매 등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전문 병원으로 자리 매김할 것이며, 양·한방 협력진료를 통해 차별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중증 노인 종합 의료시설이 없어 타지로 떠나야만 하는 노인과 그 가족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다.

우천규 예비후보는 "조 기형화 사회에 가장 필요한 자원은 의료시설이며, 이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하며 "300여개의 신규 일자리와 관련 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하며 정읍시를 서남권의 의료중

/정읍=김대환기자

Advertisement for Mulberry Wine and Gansanmyeongju products. It features images of wine bottles, gift sets, and a cartoon character.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and various gift set prices like 'GIFT SET 1호 | 750ml 2ea, 잔 2ea/16%'.